

##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**부총리** 모두발언(5.1.)

-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- 높은 대외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장기화 속에서 지역경제와 기업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.
  - 지난주 미국 정부와의 ‘2+2 통상협약’를 바탕으로 상호관세 유예기간 내에 양국이 합의할 수 있도록 ‘July Package’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  - 아울러,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꼭 필요한 지원들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“끝까지 책임과 소임”을 다하겠습니다.

### [ 여수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계획 ]

- 먼저, 석유화학산업 부진으로 지역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여수시를 ‘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’으로 지정하였습니다.
- 이를 통해 향후 2년간 지역내 기업의 경영 안정과 투자, 고용 회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.
  - 매출이 감소한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, 협력업체에는 정책금융 만기연장(1+1년)과 우대보증을 지원합니다.  
\* (만기연장) 산은, 기은, 수은, 신보, 기보 / (우대보증) 신보, 기보
  - 친환경·고부가가치 소재 R&D 투자 지원과 고용안정 지원 사업도 우선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.
- 이와 함께, 석유화학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 노력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

## [ 범정부 빈집관리 종합계획 ]

- 지역의 경제와 안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빈집의 ‘생산적 활용’을 위해 관리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.
- 빈집관리 특별법\*을 제정하여 정비계획 수립 등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의무를 신설하겠습니다.
  - \* (도시) 「빈건축물정비특별법」(국토부) / (농어촌) 「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」(농식품해수부)
- 매년 국가통계로 빈집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.
- ‘빈집애(愛)’ 플랫폼을 통해 빈집 거래 정보와 AI 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활용 방안을 제공할 것입니다.
-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관리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합니다.
  - 도시 정비사업과 연계시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고, 빈집 터를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재산세 경감 기간을 활용기간 전체로 확대(現 5년)하여 세부담을 낮추겠습니다.

## [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안 ]

- 또한, 중소기업들의 절실한 요청을 고려하여 매출액 기준을 10년만에 조정합니다.
  - \* (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) 5년마다 매출액 기준의 적정성 검토 원칙
- 이번 개편안은 단순히 물가상승 영향으로 지원혜택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면서, 중소기업의 성장을 함께 유도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.
  - 이를 위해 매출액 기준을 16개 구간(現 10개)으로 다양화하고, 최대한도는 1,500억원에서 1,800억원 이하로 상향하겠습니다.
    - \* [중기업 16개 업종] 5개 구간 400 ~ 1,500억원 → 7개 구간 400 ~ 1,800억원
    - [소기업 12개 업종] 5개 구간 10 ~ 120억원 → 9개 구간 15 ~ 140억원
- 이러한 내용의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개정안을 5월초 입법예고하고 신속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.

[ 벤처투자기업성장 분야 주요대책 이행점검 ] [ 건설산업 주요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]

□ 그동안 추진했던 주요 정책들은 효과가 더욱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.

-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과 글로벌화를 밀착 지원\*하고 '26년까지 싱가포르 K-글로벌 모펀드 설립을 마무리하겠습니다.

\* (점프업 프로그램) '25년 참여기업 100개社 선정 완료('25.3월)

-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관세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추가 지원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.

- 자재비 인하\* 효과가 건설공사비 안정화로 이어지도록 매월 시장을 점검하고, 불법·불공정관행을 수시 단속하겠습니다.

\* '자재수급 안정화 협의체'를 통해 수도권 레미콘 단가 2.5% 인하 유도('25.3월) 등

- 또한, 건설부문 부진 요인을 분야별로 철저히 분석하고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.

□ 다음은 산업부 장관, 중기부 장관, 행안부 차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.

□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.